

관객들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 알리다

이윤정 피아노 독주회 '인생 2막 이야기' 내달 4일 문화공간이름서

오는 11월 4일 오후 5시, 이윤정 피아노 독주회 '인생 2막 이야기'가 문화공간이름서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3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6년 만에 준비하는 독주회에서 관객들에게 그의 인생 2막 이야기와 함께 연주를 들려준다고 한다.

음악의 다양한 얼굴, 감동의 결이 빛나는 아날 공연에서 선보일 곡들은 L.V. Beethoven(1770~1827) Piano Sonata No.14 'Moonlight' Op.27-2, W.A.Mozart(1756~1791) Piano Sonata for 4-Hands in C Major, K.521, M.Glinka(1804~1857) Variations on Alyabiev's Song 'The Nightingale', F.Chopin(1810~1849) Ballade no.1 Op.23 in G minor, Ballade no.4 Op.52 in F minor 등이 모두 곡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음악의 마법을 품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아니스트 이윤정은 음악을 통해 감정과 예술을 표현하는 무한한 울림과 다채로운 색채를 조화롭게 그



려내며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가이다.

그는 음악에 대한 뛰어난 열정과 예술적 안목을 통해 고요하면서도 열정적인 만남을 창조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및 동 대학원 음악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Russia Gnesin Academy에서 최고 연주자과정

(D.M.A.)을 수료함으로써 그의 음악 여정은 시작되었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러시아 Cantus Firmus Orchestra, 불가리아 Sofia Solists Chamber Orchestra, 독일 New Philharmonia Hamburg Orchestra와 협연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선사했으며, 피아노 독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실내악 연주자와 교육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다양한 음악장소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하며 많은 청중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예술의전당 IBK제임버홀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음악회 Paris Festival Orchestra와 협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창조하며, 청중과의 음악적 교감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

이윤정은 2018년 전주에서 문화공간이름을 개관하고 이사장으로서 이름을 단순한 공간 운영 이상으로, 지역 예술가와 예술의 창작, 표현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종묘제례악·처용무 보유자 유족들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정리

국립무형유산원, 故 김천홍 무형유산 기증자료집 발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종묘제례악·처용무 보유자 고(故) 김천홍의 유족에게 기증받은 자료를 정리한 '무형유산 기증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기증자료집에는 1920~30년대 이왕직악부 시절 사진을 비롯해 해금과 양금 등 김천홍이 직접 사용했던 악기, 춤 동작을 그림으로 작성한 친필 무보(舞譜), 공연 때 입었던 복식 등 약 한 세기 동안 우리 음악과 춤에 헌신한 김천홍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 1,186건을 실었다.

특히, 해금은 아악부원양성소 시절부터 전공으로 삼아 종묘제례악에서 해금 보유자로 활동했던 김천홍의 음악 인생을 보여주는 악기로 의미가 깊다. 또한 김천홍이 직접 대본을 쓰고 안무를 구성해 1959년에 초연한 '처용랑'의 대본과 홍보물, 공연사진들은 전통 음악과 춤을 바탕으로 기존과 다른 무용극을 새롭게 보여주었다 했던 김천홍의 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무형유산 기증자료집'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www.ihag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와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무형유산 자료를 지속적으로 기증받아 자료집을 발간해 그 의미와 가치를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센터, 전봉준 유적 등서 합동소방훈련

전북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 남해경)는 지난 11일과 13일 정읍 전봉준 유적과 김명관 고택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소방훈련은 문화재에 화재 발생 시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실제 화재 발생을 가정해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 교육과 문화재 내 불뿔 잡기, 연기 잡기 등

화재 예방시설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의 소화기 작동 시연과 소화전 방수 훈련 등을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은성 기자



20일 완주 둔산공원에서 '둔산다복 음악회'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완주 둔산공원 야외무대에서 '둔산다복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둔산다복 음악회'는 전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정석케이칼과 완주산업단지진흥회, 둔산이화회가 후원, 여행스케치, 씨니힐 연주, 무직회사, 진해심 등 화려한 출연진이 관객과 만난다.

먼저 여행스케치는 친숙한 통기타와 풀벌레 계속의 물소리, 빗소리 등 자연의 효과음을 담아 소박한 색깔의 가사와 멜로디를 노래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포크 음악 그룹이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잖아', '별이 잔디밭 등 특별한 무대를 관객과 함께한다.

또 걸그룹 씨니힐의 멤버 은주는 라디오 로고송, 만화 주제곡 참여, 유명 가수 가이드 작업 등을 비롯해 다양한 무대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보컬리스트다. 'Goodbye to Romance'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무직회사는 클래식을 전공한 청년들이 모여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하면 더 지속해서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클래식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 모인 청년 단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매들라와 함께 가을 음악회의 낭만을 선사한다.

끝으로 트로트 열풍을 이어갈 일사 진해심은 27년간 전매 굵은 활동으로 대중들을 만나왔다. 깊고 진한 매력적인 음색으로 음악회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음악회는 전북지역 대표기업인 정석케이칼과 완주산업단지진흥회, 둔산이화회의 소중한 예술후원을 통해 이뤄졌다"며, "둔산공원의 높은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지는 음악회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지역문화예술·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은행과 협약 체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3일 재단 4층에서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경운 대표이사 외 오현권 부장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 기반 강화 협력, △지역협력과 상생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 생태계

조성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타 전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과 함께 지역문화 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국 무대 넘어 해외로

남원시립국악단, 영동 난계 국악축제 등 참가 27일 아부다비 '코리아 페스티벌' 개막 공연도

남원의 수준 높은 국악 공연이 전국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영동 난계 국악축제에 초청받아 지난 13일 저녁 8시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메인무대에서 전통 민속악 공연으로 무용 임흥소고의 신명나는 소고가락부터 산조합주, 판소리, 교방발췌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흥겨운 남도민요로 관객의 흥을 끌어올렸다.

올해로 54회를 맞은 영동 난계 국악축제는 우리나라의 3대 악성으로 꼽히는 난계 박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박연의 고향인 영동에서 시작된 국악 축제다.

14일 오후 2시 30분에는 전남 순천시 송광사에서 산사의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국악관현악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마지막 곡인 모듬북협주곡 Heart of storm은 심장 박동 소리처럼 요동치는 모듬북 연주와 함께 휘몰아치는 안무로 폭풍을 표현해 관객들을 압도했다.



특히, 국악단은 오는 27일 저녁 7시 30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Umm Al Emarat Park에서 진행되는 2023 코리아 페스티벌 개막식 공연을 앞두고 있다.

또한, 민속악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전통소리경은 오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광한루원 안원정에서 공연하고, 오는 12월 말에는 남원의 숨은 이야기 김시습의 금오신화 '민복사저포기'를 바탕으로 전쟁 속 민중들의 애환과 가슴 아픈 사랑을 몽환적인 구조로 그린 기획공연 '민복사의 꿈'(가제)을 공연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만경강 전국가요제 및 10월의 어느 멋진 날 축하소

본선 2023.10.31.(화) 오후 5시~10시, 삼례공영주차장 특별무대

2차 예선 2023.10.18.(수) 오전 10시~오후 5시, 삼례예술촌
*온라인 1차 예선 통과 후 선발된 자(2차예선 참가자, 문자메시지 개별통보)

만경강 전국가요제

참가자격
2007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안내
신청서 제출기간: 2023년 10월 10일(화) 까지
참가료: 가성 자유곡 1곡(밴드 및 팝송 제외)
제출서류: ①명함판사진 1장
②신청서(성명·나이·곡명·연락처·참가지역 기재)
③노래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byeon1960@hanmail.net) 또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제출(☎010-3624-0818)
*온라인 1차예선 100명 선발 후 예선참가 기회부여

참가문의: 070-5033-7394 / 010-3625-7394

출연진

윤영진 송계영
미키

김민준
김민준

가성 진해심

가성 조수우

가성 혜미

가성 정정실

대상(1명): 상장, 상금 300만원, 가수인증서
*대상 수상자 신곡출연 기회 및 본 가요제 개최시 초대가수 섭외

금상(1명): 상장, 상금 100만원, 은상(1명): 상장, 상금 70만원

동상(1명): 상장, 상금 50만원, 장려상(1명): 상장, 상금 30만원
*연내 각종축제 및 행사에 출연기회부여 및 방송출연 기회부여

주최·주관 | 만경강가요제 재전위원회 후원사 | (주)한광전력, (주)주석산업개발, (주)태광기업